

무수천의 진짜 이름은?

데스크승인 2011.01.26 제주신보 | webmaster@jejunews.com

들판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푸새나 꽃들마저 모두 이름을 안고 자란다. 그래서 지상에는 무명초나 무명화는 없다. 하물며 사람이나 땅의 어느 곳이든 뜻이 담긴 교유한 이름을 지녔으니 뒷날 사람들은 이를 곰곰이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 원(元)제주시의 도평동과 해안동의 서쪽 사이로 하여 애월읍과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을 '무수-내'라 부른다. 한자어로 무수천(無愁川)이라 표기했다. 그 글자의 뜻대로 '근심을 없애주는 하천'이라고만 하면 될까?

아니다. 한라산 북쪽 하천계곡 가운데 으뜸이란 이 골짜기는 오랜 옛날부터 시인묵객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그래서 1653년 부임한 제주목사 이원진은 '무수천-찬시(讚詩)'를 지었다. 광령리의 김영호(애월면의원)도 '무수천-팔경'을 노래했다. 이 내의 하류에는 조공천·도근천·외도천이라 하여 고려의 명찰 수정사가 있던 곳이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익재 이재현의 글에 "도근천퇴제수방(都近川頽制水坊) 수정사리역창랑(水精寺里亦滄浪) 운운"이라 하였다. 이는 고려 말 불교의 타락상과 제주에 흉년이 들어 육지의 쌀을 학수고대하는 내용을 읊은 것이었다.

최근 제주판과 김치(1577-1625)의 글 '한라산 유산기(遊山記)'를 읽게 되어 '무수내'의 참뜻을 알게 되는 기쁨을 품었다. 그의 '등(登)한라산 절정시'는 도내의 예전 유림들이 모두 암송하여 즐기는 한시다. 제주자연사박물관 현관 공간에 소암 현종화의 글씨가 바로 이 시이니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김치의 유산기에 '수철천변신마(水鐵川邊信馬) 이상척축두견조휘(而上躑躅杜鵑照輝) 어암석지간종일한음(於巖石之間終日間吟)'이라 했다. '무수내 냇가 말 위에서 보는 진달래나 두견새는 바위 사이에서 종일 한가롭게 시를 읊조리게 한다'란 구절에서 이 하천 이름의 뜻을 알아 나 스스로 내 무릎을 치고 말았다.

왜 수철천(水鐵川)이라 했을까? 이 말은 곰곰이 나를 골몰하게 한다. 수철은 곧 물과 쇠의 합성어, '무쇠'는 바탕이 연하고 빛이 검다. 강철보다 녹기 쉬어 솔·철판·화로를 만든다. 목사 이원진보다 앞서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이 섬에 온 김치판관은 한라산 등산기에 수철천이라 한 것이다. 하천명이 그의 창작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명칭이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랜 된 표기임은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풀이한다. 이 하천 골짜기의 암반 모습이 마치 무쇠처럼 보여서 '무쇠내'라

한 것을 후일 한문을 좋아하던 이들의 시정(詩情)에 의해 무수천(無愁川)이라고 표기한 것인데 후일 '고유명사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 내는 한라산 정상 서쪽 산자락 해발 1600m의 '장구-목'에서 발원하여 섬 안에서 가장 높은 고지를 요리조리 흘러흘러 총 길이 18.30km를 감돌아 바다에 이른다. 이런 긴 골짜기는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은 무쇠로 녹아 흐르듯 바다에 이른 것이 아닐까? 또 동남쪽 '어리목-골'과 영실(瀛室) 북쪽, 그리고 서쪽 '볼래-오름'이 판상절리와 주상절리로 이루어져 풍광이 매우 수려하다. 이런 절리들도 모두 용암이 내뿜으며 조화를 부린 무쇠 곧 수철(水鐵)의 조화가 아니던가!

무수내는 사시사철 가운데 아리따운 진면목을 보일 때는 무어라 해도 가을이라 하리라. 봄과 여름은 나뭇잎이 무성하여 무쇠처럼 생긴 까막칙칙한 골짜기는 제 모습이 가려져 울퉁불퉁한 남성다운 형해미(形骸美)를 전혀 볼 수 없다. 더구나 겨울에는 하얀 눈이 덮여 무쇠같이 짝 뻗은 여성다운 각선미를 감상할 수 없다. 제주의 여러 목민관 가운데 가장 문필력이 돋보인 제주판관 김치도 천고마비의 계절에 좋은 날씨를 골라 무쇠처럼 생긴 용암의 멋을 보려고 찾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문장도 유려(流麗)한 것이겠지,

나도 그를 흉내 내어 무쇠천 곧 무수천 냇가를 찾아 애월읍팔경의 제7경인 무수추곡(無愁秋谷)을 다시 음미하며 겨울을 기다린다. 그래야 천백도로의 제8경인 천백설화(千百雪花)를 찾으리라. 아! 한라산 자락 나뭇가지에 핀 하얀 눈송이에 오늘은 취해보리라.

<제주도교육의정회 이사장>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